

중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박영민* · 가은아**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학생들의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화제에 관한 배경 지식, 글의 유형에 대한 지식, 쓰기 과정의 기능이나 전략, 상위인지 등이 그러한 요인의 예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으로 학생들의 쓰기 동기와 성별이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쓰기 동기와 성별도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쓰기 동기는 쓰기 행동이나 쓰기 행위를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며 발달하도록 돕는 심리 요인이다. 그러므로 쓰기 동기의 수준에 따라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nrapture@knue.ac.kr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metel1019@hanmail.net

학생들의 쓰기 수행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쓰기 활동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면 쓰기 동기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나은 글을 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성별로 구분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글을 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언어활동에 관한 성별 차이를 다룬 연구를 검토해 보면, 여학생들이 읽기와 쓰기를 더 일찍 배우고 더 유창하게 활용하며 더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쓰기 동기 요인과 성별 요인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 대전, 전라 지역의 중학생 435명으로부터 쓰기 동기, 성별, 쓰기 수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중학생의 쓰기 수행이 쓰기 동기 수준에 따라,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쓰기 동기와 쓰기 수행의 영향 관계, 학생 성별과 쓰기 수행의 영향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매우 적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쓰기 동기와 쓰기 수행

동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힘을 뜻한다. 또한 동기는 실천으로 옮긴 그 행동이나 행위를 지속하도록 하며, 행동이나 행위의 방향을 결정짓고, 행동이나 행위가 발달할 수 있도록

록 영향을 미친다(Atkinson, 1958 ; 윤미선, 2003 재인용). 이러한 일반적인 동기의 개념을 쓰기 영역에 적용한 개념이 바로 쓰기 동기이다. 그러므로 쓰기 동기는 글을 쓰는 행동이나 행위를 (1) 시작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2) 지속하도록 하며, (3) 발달을 이끄는 심리적인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영민·최숙기, 2009). 쓰기 동기는 쓰기 행동이나 쓰기 행위를 시작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며 발달하도록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쓰기 동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쓰기 능력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읽기 발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글을 쓰려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쓰기 능력 발달도 성취하기 어렵다. 쓰기 교육에서 쓰기 능력 발달에 앞서 쓰기 동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쓰기 동기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동기에 대한 연구는 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동기를 다루는 데에 치중하면서 동기를 쓰기 영역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영역으로 전용하여 다루는 데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뿐만 아니라,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쓰기 교육이 지식, 기능이나 전략, 상위인지 등의 지적 요소에만 몰입함으로써 쓰기 동기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쓰기 동기와 같은 정서 요인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해 온 서구의 지성사와 맞닿아 있다. 정서 요인은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측정이 난해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쓰기 동기도 동일한 이유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동기에 관한 연구가 발달하고 읽기 영역이나 쓰기 영역에서 작동하는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쓰기 동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그 가운데 Kellogg(1994)를 예로 꼽을 수 있다. Kellogg(1994)는 인지의 관점에서 쓰기 수행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지식, 전략과 함께 필자의 동기 요인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능한 필자는 과제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더불어 충분한 몰입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쓰기 동기가 이러한 창조적 몰입과 능숙한 쓰기 수행을 이끈다고 보았다. 그리고 쓰기와 관련된 동기의 여러 양식으로 성취동기, 쓰기 욕구,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인지심리학자인 Hayes(1996)는

앞선 쓰기 과정 모형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동기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쓰기 과정 모형을 새롭게 수정하고, 쓰기 동기가 필자의 인지 과정, 작업 기억, 장기 기억에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쓰기 동기가 쓰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한편,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쓰기를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전통적인 학문적 글쓰기의 고립을 극복하고 사회적 행위로서의 협동적인 글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쓰기 동기가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Nelson, 2007 ; Bermardi & Antolini, 2007). Nelson(2007)은 전통적으로 쓰기가 개인적 활동이라는 관점과는 다른 입장에서 ‘학습 공동체’(literate community)를 제안하였다. 학습 공동체란 문식성 활동을 수렴하고 개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며,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글을 쓰는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Nelson(2007)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협력적 글쓰기에 참여함으로써 쓰기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Nelson(2007)은 쓰기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필자가 쓰기를 경험할 때, 쓰기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이 제시될 때 쓰기 동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쓰기 동기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쓰기 목적이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글을 씀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필자의 목적이 글을 쓰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쓰기 동기는 쓰기 행동이나 행위를 시작하게 하고 쓰기의 목적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쓰기 수행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동기가 높은 사람이 활동이 왕성하고 적극적이며 몰입을 경험하듯, 쓰기 동기가 높은 필자는 쓰기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쓰기 활동에 몰입하는 빈도도 높다. 따라서 쓰기 동기가 높은 필자는 쓰기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쓰기 동기와 관련된 요인 중 일찍부터 관심을 끌었던 것은 흥미 요인이다. 흥미는 특정한 대상, 활동이나 행위, 사건 등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대상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 노출 빈도

및 참여 빈도, 몰입 및 집중의 심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흥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때 주의집중을 하게 되고, 더 노력하고 지속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Ainley et al., 2002). 학생들이 쓰기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현상을 보일 것이므로 학생들의 쓰기 흥미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쓰기 흥미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화제나 글의 유형에 따라 쓰기 흥미가 달라진다는 것과, 이러한 흥미의 차이가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Hidi & McLaren(1991)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흥미로운 주제로 글을 쓸 때 학생들의 쓰기 동기가 향상되며, 이러한 쓰기 흥미는 필자가 가진 내용 지식에 의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enton et al.(1996)은 Flower & Hayes(1981)의 쓰기 모형을 기반으로 과제 환경을 구성하는 쓰기 화제가 계획하기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들은 흥미로운 화제로 글을 쓸 때 그렇지 않은 화제로 글을 쓸 때보다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표현하는 데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idi & Renninger(2006)는 쓰기와 관련된 흥미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을 고려하여 흥미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상황 흥미의 형성 단계, 상황 흥미의 유지 단계, 개인 흥미의 형성 단계, 그리고 개인 흥미의 발달 단계로 구분하였다. 학생들이 흥미의 정점인 개인 흥미의 발달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쓰기 동기의 요인으로 탐색되어 온 쓰기 효능감은, 쓰기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jares, 2003). 쓰기 효능감은 Bandura(1986)의 자아 효능감 이론을 쓰기 영역에 전용한 것이므로, 쓰기 효능감은 쓰기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기 판단 혹은 자기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쓰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이 글을 잘 쓸 수 있고 끝까지 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쓰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글쓰기에서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고 좋은 글을 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쓰기 결과에 대한 기

대는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쳐, 효능감이 높은 긍정적 학생들은 우수한 쓰기 수행을 보이고, 효능감이 낮은 부정적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쓰기 수행을 보인다. 그래서 쓰기 효능감은 쓰기 수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표지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Pajare, 2003 ; Pajares & Valiante 1997, 2007 ; Schunk & Swartz, 1993).

2. 성별의 차이와 쓰기 수행

학업 성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OECD가 주관하는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03년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읽기 성취도, 수학 성취도, 과학 성취도 및 문제해결력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읽기는 여학생이 높은 성취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읽기 영역을 제외한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의 성취 수준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 성취의 남녀 차이는 2003년의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TIMSS)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쓰기 수행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존재한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170,899명의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를 연구한 Engelhard et al.(1994)은 여학생들이 쓴 글이 남학생들이 쓴 글에 비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설명적 유형의 쓰기에서는 차이가 적었으나, 묘사하는 유형의 쓰기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는 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Berninger et al.(1996)와 Berninger & Fuller(1992)의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수행의 차이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Berninger et al.(1996)은 중학교 7, 8, 9학년을 대상으로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에 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어의 수와 작문 유창성 지수를 공변량으로 잡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그 차이가 소거된다는 점을 밝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쓰기 유창성, 즉 글을 쓰는 속도는 떨어지지만 글의 내용과 조직에 기반한 쓰기 수행의 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Berninger & Fuller(1992)에서도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쓰기 유창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자기의 생각을 정서법에 맞게 표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남학생들은 쓰기에서 여학생들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나 그들의 생각을 표기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쓰기 수행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쓰기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남학생들은 종종 성공적인 글쓰기를 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남학생들은 쓰기 과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영민·김승희(2007)와 박영민·최숙기(2008)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쓰기 수행의 남녀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쓰기 능력이 우수했다.

Sax(이소영 역, 2007)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남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놀랄 정도로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 교육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11학년 남학생의 평균 쓰기 실력이 8학년 여학생의 평균 실력과 같은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성별 차이가 미국뿐 아니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가 뇌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쓰기 교육을 시행해야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성별에 따라 쓰기 수행의 질적,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남녀 차이가 어떠한지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

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 어느 학년에서, 어느 유형의 글쓰기에서 또는 쓰기의 어느 과정에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토대가 될 때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중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과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대전의 지족중학교, 경기의 숙지중학교, 전라의 왕의중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전의 지족중학교는 남녀 분반으로 편성되어 있어 각 학년마다 남학생 한 학급, 여학생 한 학급씩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숙지중학교와 왕의중학교는 남녀 합반으로 편성되어 있어 각 학년에서 각 한 학급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쓰기 수행의 남녀 차이 분석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자료를 수집한 중학생의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규모 및 분포

학교 \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대전 지족중학교	39	37	35	41	30	35	104	113
경기 숙지중학교	21	20	20	15	17	22	58	57
전라 왕의중학교	16	18	19	15	17	18	52	51
계	76	75	74	71	64	75	214	221

2.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 중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선행 연구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적용된 것이다(박영민, 2006).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로서 .895이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쓰기 동기 검사 도구는 19개 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협력적 상호작용, 쓰기 효능감, 경쟁적 노력, 도전심의 네 가지 하위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협력적 상호작용은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지와 관련된 요인이며, 쓰기 효능감은 자신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잘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관련된 요인이다. 경쟁적 노력은 다른 사람보다 글을 잘 쓰려고 위해 노력하거나,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고, 도전심은 쓰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해낼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러한 쓰기 동기 하위 요인에 할당된 문항은 <표 2>와 같다. 쓰기 동기 검사 도구의 문항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2〉 쓰기 동기 하위 요인별 문항과 문항수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협력적 상호작용	01, 05, 09, 12, 15	5
효능감	02, 06, 10, 13, 16, 18	6
경쟁적 노력	03, 07, 11, 14, 17, 19	6
도전심	04, 08	2

중학생의 쓰기 수행을 조사하기 위해 부여한 쓰기 과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물건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쓰기’였다. 쓰기 과제로 설명문을 제시한 이유는 설명문이 학습을 위한 글쓰기 유형으로서 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문은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읽고 쓰는 글의 유형이다. 다만 설명문은 화제와 관련한 배경지식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없어도 글을 쓸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화제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쓰기 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Spandel & Culham(1996)의 평가 기준을 변안하여 구성하였다. 설명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범주의 충점을 높게 설정하였다. 내용 범주에는 설명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설명의 풍부성, 내용의 통일성을 포함하였다. 내용, 조직, 표현 및 어법 범주 모두를 1, 3, 5점의 척도를 적용하여 50점 만점의 척도로 작성·적용하였다. 평가 기준표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명문 쓰기 평가 기준표

범주	평가 기준	척도			점수
내용	• 설명하려는 대상을 명료하게 설명하였는가?	1	3	5	20
	• 내용이 진부하지 않고 독창적인가?	1	3	5	
	• 대상에 대한 설명이 풍부한가?	1	3	5	
	•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인 중심 내용과 부합하는가?	1	3	5	
조직	•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는가?	1	3	5	15
	• 내용 전개에 따른 단락 구분이 적절한가?	1	3	5	
	• 설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하였는가?	1	3	5	
표현 및 어법	• 대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1	3	5	15
	•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하였는가?	1	3	5	
	• 단어 선택이 적절하고, 어법에 맞게 썼는가?	1	3	5	

3. 연구 절차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 25일부터 6월 25일에 이루어졌다. 대전, 경기, 전라 지역의 중학교 학생 439명에게 쓰기 동기, 성별, 쓰기 수행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학교의 국어 담당 교사가 도움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얻기 위해 연구의 취지, 의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쓰기 동기 자료와 쓰기 수행 자료는 같은 시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학사 일정상 동시에 수집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틀을 넘기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수집된 쓰기 동기 및 쓰기 수행 자료는 439편이었으나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이 있는 자료, 무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435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쓰기 수행 자료는 경력 5년 이상의 중학교 현직 국어교사 3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는 2009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 동안 이루어졌다. 평가자들에게 설명문 평가 기준을 제공한 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의뢰하였으며 별도의 평가자 협의는 실시하지 않았다. 세 명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Cronbach α 로서 .802였다.

4. 분석 도구

중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SPSS for Windows 12.0 한글판이다. 쓰기 동기 및 쓰기 수행의 기술 통계에서 성별, 학년별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쓰기 동기의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상, 하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쓰기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학년별 양상도 탐색하였다. 성별에 따른

수행의 차이 또한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여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학년별 양상을 분석하였다. 쓰기 동기 수준과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효과크기로 접근하여 쓰기 동기와 학생의 성별이 쓰기 수행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쓰기 동기 및 쓰기 수행의 기술 통계

쓰기 동기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쓰기 동기와 쓰기 수행의 기술 통계를 확인하였다. 쓰기 동기는 435명의 자료 중에서 무응답 등의 결측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408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쓰기 동기의 기술통계는 <표 4>와 같다.

<표 4> 쓰기 동기의 기술 통계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쓰기동기	성별	남	200	3.29	.878
		여	208	3.43	.811
	학년	1	142	3.56	.857
		2	140	3.30	.811
		3	126	3.20	.834

<표 4>에 따르면 성별로 구분할 때 여학생의 쓰기 동기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동기는 척도 평균인 3.5에 미치지 못하였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쓰기 동기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

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에서는 F값이 .948, 유의확률이 .331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t 검증을 적용한 결과, t 통계량 -1.707 , 유의확률 .089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쓰기 동기를 학년별로 구분하면 1학년의 쓰기 동기가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인다. 학년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하여 쓰기 동기의 평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쓰기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학년과 쓰기 동기는 반비례 관계를 보고해 왔다.

그런데 학년에 따라 감소하는 쓰기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쓰기 동기가 감소하더라도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F값이 6.713, 유의확률이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1, 2, 3학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차이가 어느 집단 사이에서 나타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HSD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 쓰기 동기는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1학년과 3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새로운 환경에 따른 호기심, 열정, 의욕 등으로 쓰기 동기가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정적인 쓰기 활동 경험에 의해 쓰기 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생들이 쓰기 과제에 따라 작성한 글을 평가한 쓰기 수행의 기술 통계는 <표 5>와 같다.

〈표 5〉 쓰기 수행의 기술 통계

요인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쓰기수행	성별	남	214	33.62	6.953
		여	221	35.33	7.011
	학년	1	151	33.69	6.523
		2	145	34.72	7.485
		3	139	35.10	7.031

〈표 5〉에 따르면 쓰기 수행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얻었다.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쓰기 수행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논의는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표 5〉에 따르면 쓰기 수행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가 같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 수행의 질적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F값은 1.577, 유의확률은 .20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년별 차이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평균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하지만 그 상승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쓰기 동기의 척도 평균 3.5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쓰기 수행의 전체 점수가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쓰기 수행	쓰기 동기 수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p
전체점수	상	185	36.48	6.56	406	5.084	.000
	하	223	33.02	7.06			

<표 6>에 따르면 쓰기 동기 수준이 상인 집단의 쓰기 수행 평균이 36.48, 표준편차가 6.56이고, 하인 집단의 평균은 33.02, 표준편차는 7.06이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에서 F값이 .724, 유의확률이 .395로 분석되어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증을 적용한 결과, t 값은 5.084로, 유의확률은 .000로 분석되었다.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이 쓰기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해 쓰기 수행이 더 우수하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효과크기는 <표 7>과 같다.

<표 7>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효과크기

분석 요인	상	하
평균	36.48	33.02
효과크기	.4899	0
백분율	68.79	50

<표 7>와 같이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과크기는 .4899이다. 이는 쓰기 동기 수준이 하인 집단의 평균을 상위 50% 지점으로 보았을 때, 쓰기 동기가 상인 집단의 평균 점수는 쓰기 동기가 하인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상위 31.21%에 위치함을 말해 준다.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과 쓰기 동기가 낮은 집단의 쓰기 수행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의 평균이 낮은 집단의 평균에 비해 18.79%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쓰기 수행의 하위 요인인 내용, 조직, 표현 및 어법에서는 쓰기 동기의 수준에 따라 쓰기 수행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하위 요인별 쓰기 수행의 차이

쓰기 수행	쓰기 동기 수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p
내용	상	185	14.81	2.85	406	4.724	.000
	하	223	13.42	3.06			
조직	상	185	10.59	2.14	406	4.639	.000
	하	223	9.58	2.25			
표현 및 어법	상	185	11.07	1.91	406	5.238	.000
	하	223	10.02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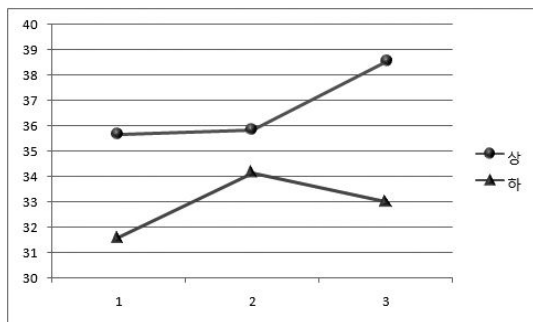
〈표 8〉에 따르면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은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하위 요인들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쓰기 동기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쓰기 수행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쓰기 동기도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쓰기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쓰기 수행이 우수하므로 쓰기 교육을 계획·시행할 때 학생들이 높은 쓰기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분석을 더 구체화하여 학년별로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학년별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학년	쓰기 동기 수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1	상	79	35.67	6.18	140	3.913	.000
	하	63	31.61	6.09			
2	상	57	35.85	6.88	138	1.327	.187
	하	83	34.13	7.95			
3	상	49	38.53	6.49	124	4.607	.000
	하	77	32.98	6.64			

<표 9>에 의하면 1학년과 3학년에서는 쓰기 동기 수준에 따라 쓰기 수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학년의 경우,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상위 집단의 쓰기 수행의 평균은 1학년 상위 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2학년 하위 집단은 3학년 하위 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학년별 쓰기 수행의 차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년별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이러한 분석 결과는 쓰기 교육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모든 학년에서 쓰기 동기는 쓰기 수행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므로 쓰기 동기를 형성하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교사는 쓰기 동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쓰기 수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 2학년은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 쓰기 수행 발달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중학교 2학년을 지도하는 국어교사는 학생들의 쓰기 동기가 높더라도 쓰기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쓰기 동기가 낮은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다. 쓰기 동기가 낮은 2학년 학생들보다도 평균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쓰기 동기를 고려할 때, 쓰기 교육은 학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3.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앞에서는 학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므로, 이제 성별에 따라 쓰기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의 성별 요인은 쓰기 수행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표지로 알려져 있어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을 분석한 기술 통계를 토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은 독립표본 t검증을 적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쓰기 수행	성별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p
전체점수	남	214	33.62	6.95	433	-2.552	.011
	여	221	35.33	7.01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값이 -2.552, 유의확률 .011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쓰기 수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가 지적해 온 것처럼, 이 연구의 결과도 여학생들의 쓰기 수행이 더 우수했다. 여학생들은 공감적 두뇌 체계를 소유함으로써 읽기나 쓰기와 같은 언어활동을 남학생보다 더 일찍 배우고 더 유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어활동에 관한 보편적인 성별 차이를 이 연구의 결과도 동일하게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성별 효과크기

분석 요인	남	여
평균	33.84	35.32
효과크기	0	.2133
백분율	50	58.32

〈표 11〉에 따르면 효과크기는 .2133으로 분석되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크기는 남학생의 쓰기 수행 평균을 50%로 보았을 때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남학생 쓰기 수행 점수 분포의 상위 41.68%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쓰기 수행이 남학생보다 8.32% 더 우수하다는 뜻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수행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쓰기 수행의 전체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쓰기 수행의 하위 요인에서도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하위 요인에서는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쓰기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하위 요인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다. 〈표 12〉는 이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 12〉 성별에 따른 하위 요인별 쓰기 수행의 차이

쓰기 수행	성별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내용	남	214	13.65	2.96	433	-2.476	.014
	여	221	14.37	3.07			
조직	남	214	9.80	2.25	433	-1.883	.060
	여	221	10.21	2.22			
표현 및 어법	남	214	10.15	2.08	433	-2.976	.003
	여	221	10.74	2.03			

성별에 따른 하위 요인별 쓰기 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쓰기 수행의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하위 요인인 내용, 표현 및 어법에서도 남학생

과 여학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조직을 제외한 내용과 표현 및 어법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쓰기 수행이 더 뛰어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문 쓰기 수행에서의 성별 차이를 검증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Pajares & Valiante, 2001 ; 박영민 · 김승희, 2007 ; 박영민 · 최숙기, 2008). 다만 조직의 경우, 여학생의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여학생이 우수했지만 조직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주목되는 특징이다. 글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요청되는데, 이 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조직 요인 점수가 낮지만, 여학생의 점수 감소가 더 크므로 조직 요인에 대한 쓰기 교육에서는 이를 더 충실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남학생의 쓰기 수행 결과가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므로 쓰기 수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남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배려하는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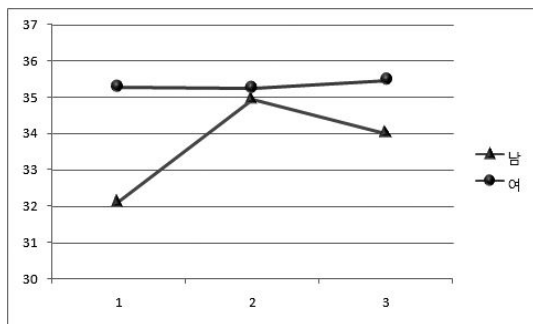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학년별로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학년별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학년별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학년	성별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1	남	76	32.13	6.47	149	-3.039	.003
	여	75	35.28	6.22			
2	남	64	34.93	6.82	143	-1.174	.242
	여	75	35.25	7.24			
3	남	74	34.00	7.33	137	-.263	.793
	여	71	35.46	7.61			

분석 결과, 1학년은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는 t값이 -3.039, 유의확률 .00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는 산술적으로는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중학교 1학년에 존재하는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가 전체적인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로 발견되는 성별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 변화 정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년별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차이는 1학년에 크게 나타나며, 2학년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외에, 성별에 따라 발달 국면이 다르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즉, 여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쓰기 수행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남학생들은 3학년에 쓰기 수행 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 국면으로 보면, 쓰기 수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2학년과 3학년의 여학생들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학년과 3학년의 쓰기 수행이 1학년의 쓰기 수행과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의 쓰기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쓰기 활동의 편성이 필요하다. 중학교 2~3학년 때에 여학생들의 쓰기 수행이 정체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쓰기 활동을 도입하고 여학생들의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남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에 교육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학년 때에 큰 폭으로 상승한 쓰기 수행 점수가 3학년에

시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쓰기 수행 점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쓰기 동기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쓰기 동기 감소가 영향을 미치면서 중학교 3학년의 쓰기 수행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 수행 점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여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쓰기 수행 점수가 상승하지 않고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남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에 오히려 2학년보다도 쓰기 수행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쓰기 수업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별 특성, 특히 학년에 따른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되어야 한다.

V. 결론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화제와 관련한 배경 지식, 글 유형에 대한 지식, 쓰기 과정에 개입하는 전략 등이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 학생들의 쓰기 동기 수준과 성별 요인도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쓰기 동기 수준에 따라 쓰기 수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성별에 따라 쓰기 수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 경기, 전라 지역의 중학생 43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쓰기 동기가 높은 학생과 쓰기 동기가 낮은 학생들의 쓰기 수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은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내용, 조직, 표현 및 어법 등 하위 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쓰기 동기의 효과크기는 .4899로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이 효과크기로 보면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의 쓰기 수행은 쓰기 동기가 낮은 집단보다 쓰기 수행이 18.79% 더 우수했다.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이지만, 쓰기 동기가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성별에 따라서 쓰기 수행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수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요인 분석에서 조직 요인은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내용, 표현 및 어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쓰기 수행이 더 우수하지만, 조직 요인에서 단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쓰기 수업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효과크기는 .2133으로서 작은 수준을 보였다. 이 효과크기로 보면 여학생의 쓰기 수행은 남학생의 쓰기 수행보다 8.32%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수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효과크기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다섯째, 성별 차이 분석에서 여학생들은 쓰기 수행 점수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남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쓰기 수행 점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쓰기 수행의 발달 국면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쓰기 수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남학생들의 쓰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쓰기 활동을 도입하고, 여학생들의 쓰기 수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글 유형이나 내용 조직에 대한 쓰기 학습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9. 6. 26. 투고되었으며, 2009. 7.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7.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박영목(2008), 『작문 교육론』, 역락.
- 박영민(2006), 「중학생의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어교육학연구』 26, pp.338~369.
- 박영민 · 가은아(2009), 「인문계 고등학생의 쓰기 지식과 쓰기 수행의 상관 및 성별 · 학년별 차이 연구」, 『국어교육』 128, pp.175~202.
- 박영민 · 김승희(2007), 「쓰기 효능감 및 성별 차이가 중학생의 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학연구』 28, pp.327~359.
- 박영민 · 최숙기(2008), 「중학생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 연구」, 『한말연구』 22, pp.47~75.
- 박영민 · 최숙기(2009), 「한국과 중국 중학생의 쓰기 동기 비교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2(2), pp.73~97.
- 신현숙(2005), 「인지적 및 동기적 변인들과 성별이 고등학생의 텍스트 유형별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2(2), pp.199~175.
- 윤미선(2003), 「사고양식에 따른 학습동기 및 교과흥미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외(2004), 「PISA 2000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평가의 결과- 학생의 학습 방법과 학교 생활 참여도」,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경 외(2005), 「우리나라 중 ·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국제 수준」,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제웅(2005), 「쓰기 동기에 관한 시론」, 『작문연구』 창간호, pp.255~287.
- Ainley, M., Hidi, S., & Berndorff, D.(2002), Learning, and the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Mediate Their Relationship.Preview,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3), pp.1~17.
- Benton, S. L., Albin, M. L., & Khramsova, I.(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est and Narrative Writ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1, pp.305~324.
- Bernardi, B. D., & Antolini, E.(2007), Fostering Students' Willingness and Interest in Argumentative Writing : An Intervention Study. In S. Hdi & P. Boscolo, P.(Eds.), *Studies in Writing, Volume 19, Writing and Motivation* (pp.183~201). Oxford : Elsevier.
- Berninger, V. & Fuller, F.(1992), Gender differences in orthographic, verbal, and compositional fluency : Implications for diagnosis of writing disabilities in primary grade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 pp.363~382.
- Berninger, V. W., Whitaker, D., Feng, Y., Swanson, H. L. & Abbott, R. D.(1996),

- Assessment of Planning, Translating, and Revising in Junior High Writ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1), pp.23~52.
- Engelhard, G., Gordon, B., Siddle-Walker, E. V., & Gabrielson, S.(1994), Writing Tasks and Gender : Influences on Writing Quality of Black and Whit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7(4), pp.197~209.
- Flower, L. & Hayes, J. R.(1981),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2(4), pp.365~387.
- Hayes, J. R.(1996),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gnition and affect in writing, In C. M. Levy & S. Ransdell(Eds.), *The Science of Writing :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pp.1~27), Mahwah, N J : Lawrence Erlbaum.
- Hidi, S. & Renniger, K. A.(2006), The Four-Phase Model of Interest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41(2), pp.111~127.
- Hidi, S. & McLaren, J.(1991), Motivational factors and writing : The role of topic interestingnes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6, pp.187~197.
- Kellogg, R.(1994), *The Psychology of Writing*, Oxford University Press, Ins.
- Minium & Clarke, 김아영 외 편역(2004)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법의 이해, 학문사.
- Nelon(2007), The Role of Literate Communi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nterest in Writing. In S. Hidi & P. Boscolo, P.(Eds.), *Studies in Writing, Volume 19, Writing and Motivation* (pp.241~255). Oxford : Elsevier.
- Nelson, N.(2007), Why Write? A Consideration of Rhetorical Purpose. In S. Hdi & P. Boscolo, P.(Eds.), *Studies in Writing, Volume 19, Writing and Motivation* (pp.17~30). Oxford : Elsevier.
- Pajares(2003), Self-efficacy beliefs,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writing :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ading & writing Quarterly*, 19, pp.139~158.
- Pajares, F. & Valiante, G.(1997),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Elementary Students' Writ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0(6), pp.353~360.
- Pajares, F. & Valiante, G.(2001), Gender differences in writing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 A function of gender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 pp.336~381.
- Pajares, F. & Valiante, G.(2007), Self-Efficacy Beliefs and Motivation in Writing Development, In C. A. MacArthur, S. Graham, & J. Fitzgerald(Ed.). *Handbook of Writing Research* (pp.158~170). YN : Guilford Press.
- Pajares, F., Valiante, G. & Cheong, Y. F.(2007), Writing self-dfficacy and its relation to

gender, writing motivation, and writing competenc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S. Hidi & P. Boscolo, P.(Eds.), *Studies in Writing*, Volume 19, *Writing and Motivation* (pp.141~159). Oxford : Elsevier.

Sax, 이소영 역(2007), *남자아이 여자아이*, 아침이슬.

Schunk, D. H. & Swartz, C. W.(1993), Writing Strategy Instruction with Gifted Students : Effects of Goals and Feedback on Self-Efficacy and Skills, *Roeper Review*, 15(4), 25t-230.

Spandel, V. & Culham, R.(1996), *Writing Assessment*, In Robert E. Blum and Judith A. Alter(eds), *A Handbook for Student Performance Assessment in an Era of Restructuring*, ASCD.

<초록>

중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박영민 · 가은아

이 연구는 중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 및 성별에 따라 쓰기 수행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경기, 전라 지역의 중학생 435명으로부터 쓰기 동기 및 쓰기 수행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쓰기 동기가 높은 학생과 쓰기 동기가 낮은 학생들의 쓰기 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쓰기 동기 수준에 따른 쓰기 수행은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내용, 조직, 표현 및 어법 등 하위 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쓰기 동기가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 쓰기 수행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쓰기 수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요인 분석에서 조직 요인을 제외한 내용, 표현 및 어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성별 차이 분석에서 특기할 사항은 여학생들의 경우 쓰기 수행 점수가 학년이 올라가도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며, 남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쓰기 수행 점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중학생들의 성공적인 쓰기 수행을 위해 쓰기 동기 및 성별의 차이에 주목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쓰기 동기, 쓰기 동기 수준, 쓰기 수행, 성별 차이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Writing Motivation Level and Gender Differences on Writing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Park, Young-min · Ka, Eu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writing motivation level and gender differences on writing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To this end, the survey of writing motivation and writing performance have been carried out with 435 students in DeaJeon, Gyonggi, and Jeonra, and then the collected data have been analyz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s who have a high writing motivation and the students who have a low writing motivation on writing performance score.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sub-factor's score—content, organization, expression and usa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s enough to show that writing motivation have a important effect on writing performance.

Also, female's mean score was higher than the male's in middle school students' writing performance.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se groups. In all sub-factors, not organization, female got higher mean scores than male di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ase of female, writing performance score show little improvement in higher grades. In case of male, writing performance score is lower in middle school 3 grade.

The conclusion mean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of writing motivation and gender difference for more successful writing performance in writing education.

[Key words] writing motivation, level of writing motivation, writing performance, gender difference

【부록】

쓰기 동기 검사 문항*

01. 나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02. 나는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한다.
0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글을 잘 쓰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04. 나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주제라도 끝까지 글을 쓴다.
05.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기를 바란다.
06. 나는 글 표현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07. 나는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8. 나는 글쓰기를 하다가 어려울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09. 나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기를 좋아한다.
10.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글을 잘 쓴다고 한다.
11. 나는 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12. 나는 친구와 서로가 쓴 글을 돌려 읽는다.
13. 나는 앞으로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예, 친구)보다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내가 쓰는 글의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자주 이야기한다.
16. 나에게서는 글 쓰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17. 쓰기 숙제는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말보다 글로써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19. 나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도해 본다.

* 이 검사 문항은 박영민(2006)에서 인용한 것임.